

구글, 넷플릭스 '망 사용료' 무임 승차, 역차별이자 시장 교란

- 지난 10년간 넷플릭스 트래픽 28배 증가, 전체 트래픽 60%가까이 점유
- 네이버, 카카오, 애플, 디즈니, 페이스북 등 망 사용료 내는데 구글, 넷플릭스만 안내
- 무임승차는 기업간 역차별과 투자 저하, 비용 전가 등 다방면으로 악영향 끼칠 것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빅테크 갑질 대책TF'는 박홍근 민생우선실천단장과 함께 오늘 오후 2시 목동 KT IDC(인터넷데이터센터)에 방문했다.

KT IDC 주요시설 시찰 및 트래픽 관련 현황 브리핑 이후 통신 3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함께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의 트래픽 유발 문제점 망 사용료 지급 필요성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KT 서창석 네트워크 부문장은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의 트래픽이 지난 10년간 28배 증가하고, 올해 KT 트래픽의 55%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면서, “ISP는 이용자에게 균질하고 안정된 인터넷 품질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트래픽 변동성에 대한 대처가 수시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SKB 조영훈 부사장은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킬 비롯한 해외 CP인 페이스북, 애플, 디즈니와 같은 콘텐츠사들 모두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구글과 넷플릭스만 협의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법 개정만이 최소한의 협상력 담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했다.

LGU+ 박형일 CRO 역시 “넷플릭스와 구글은 미국과 EU내 프랑스와 독일, 호주 등 많은 해외 주요국 통신사에는 망 사용료 또는 유사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CP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지나치게 책임을 국내 통신사에게만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장은 “국내 모바일 트래픽의 60% 이상을 점유한 해외 사업자의 망이용대가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무임승차는 기업간 역차별과 투자 여력 저하, 우리 국민에 대한 비용 부담 전가 등 여러 방면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홍근 단장은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는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망, 다양한 콘텐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이용자,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존재할 수 있다”면서, “이용자를 보호하면서 ICT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이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TF팀장 역시 “현재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을 포함해 법 개정을 위한 점검을 조속히 해나갈 것”이라며, “차별 없고 경쟁력 있는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간담회 전에 박홍근 민생우선실천단장과 TF 위원들은 KT IDC센터를 시찰하며, IDC센터의 역할과 운영 현황을 함께 점검했다.

한편, 오늘 현장 간담회에는 박홍근 민생우선실천단장과 한준호 빅테크 갑질대책 TF 팀장, 고민정, 유정주, 윤영찬, 정필모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업계에서는 KT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 조영훈 SKB 부사장, 박형일 LGU+ CRO 등이 참석했다.

2022. 7. 12.
민생우선실천단 빅테크 갑질 대책TF 한준호